

# 2020학년도 경기도 유치원 교사 임용시험 합격수기

김현승

## 1. 간단한 소개

- (합격 점수) 1차 : 86.67(컷+6, 논술 20점, 교육과정 66.67점)/ 2차 : 98.7(면접 19.7점, 토의 20점, 실연 29.5점, 나눔 29.5점)/ 최종 : 185.37(컷+10.2, 7등)
- (공부 기간) '18년 1월부터 시작하여 '20년 1월까지 2년까지, 2년동안 민쌤 직강을 다니며 공부하였습니다.
- (일 병행 여부) '18년 초수시절에는 주 6시간 과외를 하였고, '19년 재수시절에는 민쌤 조교가 되어 일을 도왔습니다.

## 2. 수험생활

- (공부 장소) 저는 지역 도서관에 다녔습니다. 경제적인 부담을 덜고, 편도 20분의 거리를 걸어다니며 약간의 운동을 하기 위함이었습니. 또 도서관 주변에 산책로가 잘 되어 있어 공부가 되지 않을 때는 산책로를 걸어다니며 공부할 수 있었습니다.
- (기상 시간) 저는 규칙적인 생활을 하지 못했습니다. 일찍 일어나면 11시, 늦게 일어나면 오후 2시에 일어나는 등 매일매일 그 일과가 달랐습니다. 대신, 한 주동안 쉬는 날 없이 매일 도서관에 가서 공부하였습니다.
- (일일 공부량) 먼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공부시간이 많다고 해서 혹은 적다고해서 불거나 떨어지는 시험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보다는, 여러 이론들의 중요도에 따른 공부량 분배, 효율적인 시간 운용 등이 훨씬 중요합니다. 각설하고, 저는 최소 4시간에서 최대 12시간 까지 공부를 하였습니다. 개론반과 각론반까지는 4~5시간을 목표로 하고, 6월에는 6시간, 7월에는 7시간 등 차츰차츰 공부량을 늘려갔습니다. 물론 하루 일과가 불규칙적으로 이루어지다보니 매일 지키는 것은 어려웠으나, 주간 목표시간을 잡아서 하루 공부시간이 적으면 그 다음 날 더 공부량을 늘리는 식으로 목표한 공부량을 달성하고자 하였습니다.

그러나,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이러한 공부시간은 개인에 따라 다르며 많다고 해서 합격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 (스터디) 생활 스터디로는 두 가지를 하였습니다. 첫째, 착석 인증 스터디입니다. 도서관 좌석표를 받고, 정해진 인증 시간 전에 좌석표를 사진찍어 네이버 밴드에 인증하는 식이었습니다. (그러나 위에서 기술했다시피, 이러한 스터디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지키지 못했습니다) 둘째, 공부시간 인증 스터디입니다. '열정품은타이머'라는 어플을 통해 제 공부시간 뿐만 아니라 다른 스터디분들의 공부시간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 스터디를 통해 남들에 비해 내가 얼마나 공부를 하고 있지 않은지 반성할 수 있었고, 다른 스터디분들과 함께 계속해서 교감하며 정서적 위안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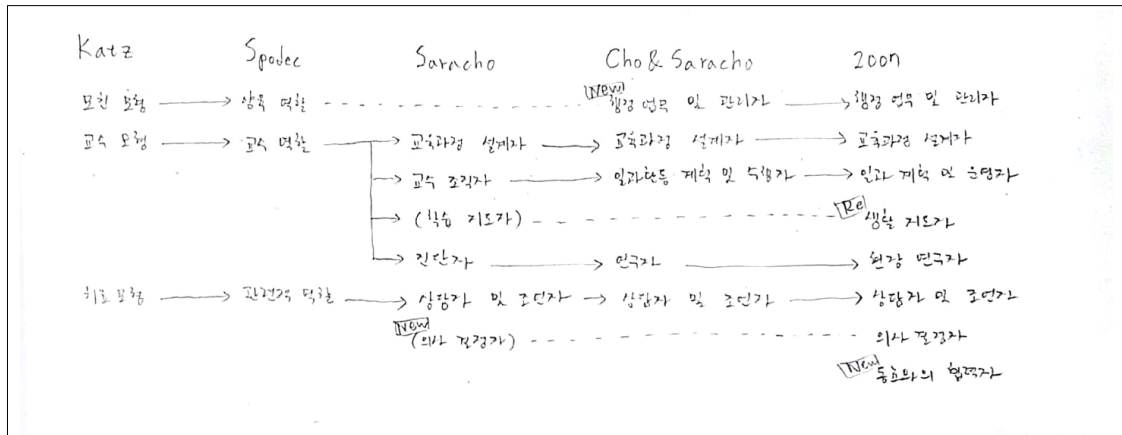
### 3. 개론 & 각론 시기 공부법

- (예습과 복습) 저는 예습을 하지 않았습니다. 개인적인 입장으로는, 예습의 경우, 우리 시험에서의 중요도를 알 수 없기 때문에 시간이 비효율적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습을 하기보단 차라리 복습을 더 여러 번 하자라는 생각을 가지고 복습을 더 열심히 하였습니다. 복습의 경우, 토요일 직장을 들은 뒤 일요일부터 수요일(혹은 목요일)까지 분량을 나누어 이해와 암기를 하였습니다.
- (필기) 저는 필기를 많이 하지 않는 편입니다. 글씨는 엉망인데 깔끔하게 정리된 판서를 선호하다 보니, 자연스럽게 필기를 많이 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대신 꼭 적어야 하는 내용이나, 각 발달단계의 가장 큰 차이점 등은 연필로 적어두고, 복습을 할 때 펜을 이용하여 깔끔하게 정리하였습니다. 추가로, 저는 중요 용어와 정의가 처음 제시될 때는 주황색 펜으로 표시를 하고, 그 외의 특징들의 경우에는 하늘색 펜으로 표시를 하였습니다. 이렇게 정의를 다른 색으로 표시하게 되면, 나중에 이를 찾아볼 때 더욱 쉽게 찾아볼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또한 암기가 되지 않는 키워드 등은, 처음에는 연필로 동그라미를 치는 방식으로, 2~3번 복습을 했는데도 암기가 되지 않는 부분은 형광펜으로 표시를 하여 반복적으로 보았습니다.

#### (1) 교육신념과 실제의 차이

|      |  |
|------|--|
| 교육신념 | <p>교사는 자신이 가진 신념에 의해 교수를 정의하고 적절한 정보와 지식을 조직하는 역할을 하게 되며 교사가 생각하고 있는 <u>교육신념에 따라 교육활동의 내용과 질이 달라질 수 있어</u> 교사의 역할 수행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 교육신념이다.</p>          |
| 교육실제 | <p>교사가 교육현장에서 <u>교육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실천하는 모든 교수행위와 장면</u>을 의미한다. 유아를 위한 교육환경 제공, 교육과정 운영계획 및 수행, 개별 및 집단에서의 상호작용 등에 자신의 학습이론 및 발달이론을 적용하는 교사의 모든 행동을 의미한다.</p> |

- (이해와 암기) 저는 이해가 되지 않으면 암기가 잘 되지 않는 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무엇보다 이해를 매우 중요시했습니다. 모든 이론에서의 용어들은 그와 관련된 핵심 용어를 응축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론을 이해한다면 암기는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물론 웹지도반부터 여러 번 반복 하며 암기는 해야 하겠지만요.) 그래서 제 나름대로 각 이론의 가장 큰 특징은 무엇인지, 각 발달단계들의 공통점과 차이점은 무엇인지를 발견하는 것에 초점을 두고 공부하였습니다. 만약 어떤 용어가 이해되지 않는다면, 해당 용어의 원어를 찾아보았습니다. 원어를 찾아 이를 다시 영한사전에서 찾아 읽어 보면, 좀 더 용어의 의미를 올바르게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e.g. 중재 (intervention) : 과제의 목표 달성을 위하여 학생이나 피험자를 돕는 일련의 도움 활동) 또 이해를 토대로 하여 좀 더 쉽게 암기할 수 있도록 저 나름대로 용어들 간의 관계를 만들어 도식화시키고자 노력하였습니다.



- (스터디) 초수시절에는 전화를 통해 주 1회 구술 스터디를 하였습니다. 전화 스터디는 복습을 모두 끝내고 난 뒤인 목요일(혹은 금요일)에 진행하였습니다. 용어를 묻거나, 정의 말하기, 혹은 발달단계 특징 말하기 등을 진행하였습니다. 이 때 중요한 점은, 교재를 완전히 보지 않고 하기보다는, 교재를 보면서 내가 잘 이해하지 못한 부분은 어디인지, 혹은 확인하지 못하고 넘어간 부분은 어디인지를 점검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목요일에 스터디를 하게 되면, 스터디에서 파악한 미흡한 부분을 금요일에 다시 한 번 복습하는 식으로 진행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재수시절에는, 이미 이해와 암기가 대부분 되어 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따로 스터디를 하지 않고 혼자 공부하였습니다. 추가로, 강독스터디는 교재를 너무 심하게 읽지 않으시는 분들께 추천드립니다. 저는 강독 시에, 해독만 하고 의미이해를 하지 못하는 편이었기 때문에 강독 스터디는 하지 않았습니다.

## 4. 안전교육 공부법

- **(안전교육 강의)** 저는 인터넷강의가 정말 맞지 않는 편입니다. 강의를 틀어놓고 계속 딴 짓을 하는 편이었기 때문에, 하루에 몰아들을 경우 의미 없게 시간을 보내기 일수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각론반이 진행되면서 매주 들어야할 안전교육 강의를 미리 나누어두고, 일요일에 1~2강의씩 수강하였습니다.(교육과정 운영 부분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또 강의를 반복해서 듣기보다는, 강의는 딱 한 번만 듣고 그 이후에는 제가 글을 읽으며 이해하도록 노력하였습니다.
- **(장학자료, 연수자료)** 저는, 주요 건강·안전자료(e.g. 대기오염대응매뉴얼, 감염병예방위기대응매뉴얼, 한교현장 재난유형별 교육훈련 매뉴얼 등)는 반드시 꼭! 직접 자료를 찾아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최근 시험에서는 이러한 자료들 구석에서 문제를 내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리고 민쌤께서 주시는 것은 어느 정도 요약 정리된 자료이기 때문에, 원본 자료를 보시고 이해를 먼저 하시는 것을 적극 추천합니다.
- **(스터디)** 웹지도반까지는 따로 안전교육과 관련된 스터디를 진행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모의고사반 때, 장학(연수)자료 중 중요 부분을 빈 칸 뚫는 방식으로 문제를 내는 스터디를 진행하였습니다.<sup>1)</su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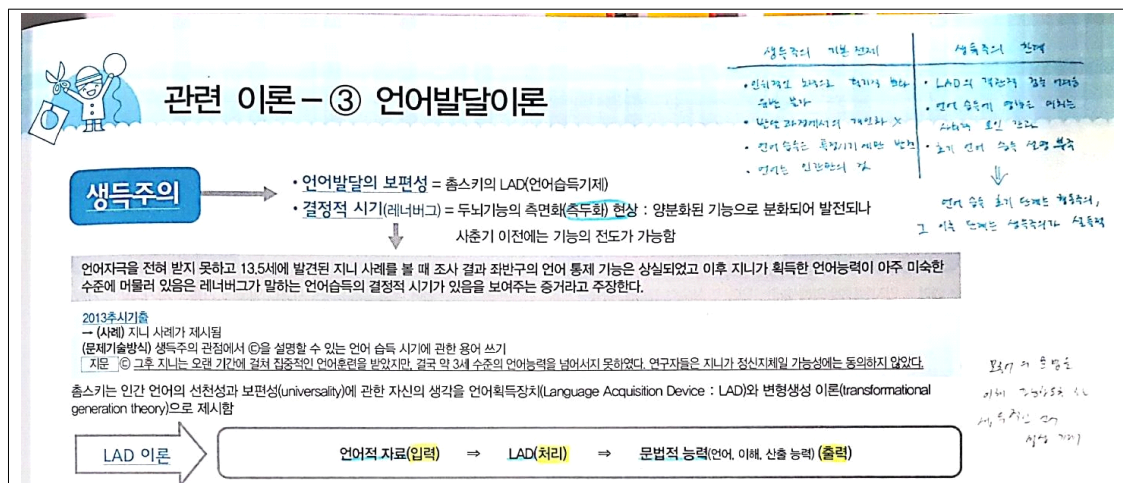


1) 을 밴드를 통한 안전교육, 해지서, 법 스터디의 경우,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필요할 때마다 쉽게 찾아 볼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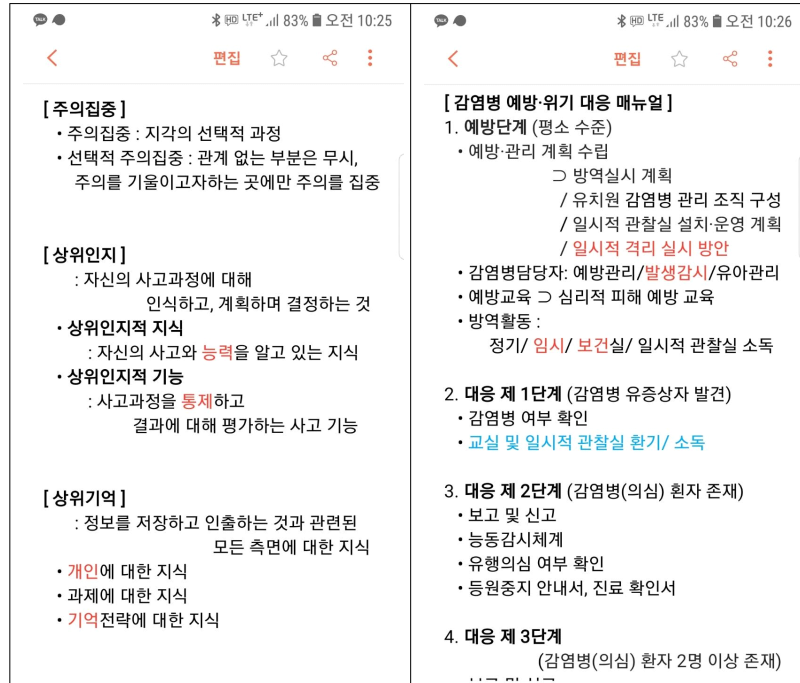
## 5. 웹지도반 공부법

### (1) 웹지도 활용법

- (정리) 매 주 진도에 맞추어 개·각론 교재를 펼치고 웹지도와 비교를 하며 공부하였습니다. 웹지도는 그 자체만으로 이미 엄청나게 요약된 자료집이다보니, 정의 부분을 따로 밑줄치지 않았고, 제가 모르는 부분을 위주로 표시를 하였습니다. 또 간혹 개·각론 교재에서 제시한 내용이 웹지도에 없을 경우에는, 해당 내용을 웹지도에 옮겨 적었습니다. 저는 앞에서 설명했다시피, 지저분한 것을 선호하지 않기 때문에 포스트잇이나 종이를 끼워 넣기보단, 가능한 손으로 필기하였습니다. 그러나, 그 내용이 너무 많거나, 제 방식대로 정리한 부분의 경우 컴퓨터로 타이핑하여 종이를 옮겨 붙였습니다. 또 문제집에서 새로 추가되는 내용 중,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내용을 웹지도에 옮겨 적었습니다.



- (이해, 슬럼프) 전체적인 이해는 이미 개·각론반에서 어느 정도 되었습니다. (물론 개인차가 있지만요!) 이 시기가 되면 문제를 풀면서 자신이 잘못 이해한 부분을 발견하게 됩니다. 많이 이해했다고 생각했는데도 문제만 풀면 틀려버리니 정신적으로 매우 힘들게 됩니다. 그런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슬럼프가 찾아오게 되는데요. 저는 이론 이해와 슬럼프 극복을 위하여 도서관의 각론서들을 많이 보았습니다. 각론서를 찾아봄으로써, 제가 잘 이해하지 못했던(혹은 잘못 이해하고 있었던) 이론들을 올바르게 이해할 수 있었고, 또 공부가 두렵고 힘든 슬럼프 시기를 쉬엄쉬엄 공부하면서도 허투루 시간을 낭비하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 (암기) 매 주 진도에 맞추어, 웹지도를 정리한 뒤에 암기를 암기해나갔습니다. 이 때, 저는 암기가 부족한 부분을 핸드폰의 메모장에 정리하여 적어두었습니다. 이렇게 메모장에 적어둘 경우, 이동하는 시간(e.g. 도서관이나 학원 가는 길)에 반복하여 보거나, 갑자기 용어가 생각나지 않을 때 이를 찾아보았습니다. (안전교육의 내용 또한 함께 정리 하였습니다!)



## (2) 문제집 활용법

- (문제 풀기) 저는 일·월·화는 지난 주 문제 복습을, 수·목·금에 그 주의 문제를 풀었습니다. 특히, 일요일부터 해당 주의 내용을 정리 및 암기하고, 수요일부터 문제를 풀어나가면서 제가 부족한 부분을 찾아 더 공부를 할 수 있었습니다.
- (오답정리) 단순히 문제를 풀고 '맞았다/ 틀렸다'를 체크하는 것은 매우 잘못된 방법입니다. 이렇게 할 경우, 다른 문제에서도 그대로 같은 과정을 통해 틀리게 될 확률이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오답정리가 사고과정을 바꾸는 과정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사용한 오답 정리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잘못된 나의 사고과정(이유) 적기/ ② 올바른 사고과정 적기/ ③ 다음번에 유사한 문제를 풀 때 고려할 사항 적기. (이 때, 반드시 이 3가지를 모두 적을 필요는 없습니다. 경우에 따라 2가지가 한 가지가 되기도 하는 등 융통적으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과정이 중요한 것은, 단순히 내가 틀렸다는 것에 초점을 두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이유로 틀렸는지를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 시험이라는 특수한 경우에, 주어진 시간동안, 빠르고 정확하게 답을 적기 위해선, 평소에 올바른 사고과정을 반복적으로 훈련하여야 합니다. 이렇게 오답정리를 한 뒤에는 문제집 이론별 분류표에 표시를 하여,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보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서술형의 경우 저는 틀린 문제이든 맞은 문제이든, 정답지의 문장을 그대로 문제지에 다시 적었습니다. 내 문장과 정답 문장에서 무엇이 다른지 발견하고, 내가 몰랐던(혹은 놓쳤던) 내용을 짚어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내가 틀린 부분은 주황색 펜을 사용하여 적음으로써, 복습을 할 때에









## 7. 논술

- **(핵심)** 초수이신 선생님들께 가장 어려운 영역은 바로 논술이라고 생각합니다. 무엇을 써야 하는지도, 어떻게 써야하는지도 모르기 때문이지요. 그래서 저도 처음으로 논술을 쓸 때는 한 문제당 4~5시간씩 걸렸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미루지 않고 매주 한 편씩은 꼭 써보는 것입니다. 꼭 손으로 쓰지 않으셔도 됩니다. 컴퓨터를 사용하셔도 좋으니, 가능하다면 강의에 밀리지 않고 꾸준히 써나가는 것을 추천 드립니다. 만약 글 쓰는 것이 너무 어려우시다면, 민쌤께서 주시는 샘플을 펴놓고 중간 중간 자신의 글과 비교를 해나가시면서 쓰셔도 좋습니다. 중요한 것은, 논술 쓰기의 감을 잡는 것입니다.
- **(스터디)** 모든 스터디가 중요하겠지만, 논술만큼은 꼭, 부디, 제발 첨삭 스터디를 하시기를 추천 드립니다. 자신의 글은 객관적으로 평가되지 않으며, 민쌤께서 주시는 샘플 글의 형식이 모든 사람에게 맞는 것은 않기 때문입니다. 스터디 안에서 다른 사람들의 문장 구성 방식, 내용 전개 방식 등을 익힐 수 있고, 또 첨삭을 통해 내 글의 문제점 등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또한 다른 사람의 글을 첨삭하는 것은, 글을 보는 눈을 키우도록 도와, 자신의 글을 적을 때의 기준을 만들 수 있도록 도울 것입니다.
- **(기출)** 논술 기출은 정말 여러 번 풀어보아야 합니다. 재수를 하게 되면 기본 두 번을 풀게 되실 텐데, 초수 선생님들도 최소한 두 번씩을 써보시기를 추천 드립니다. 한 문제를 연달아 두 번 써보아도 좋고, 몇 달의 기간을 둔 뒤 다시 써보아도 좋습니다. 다시 써본 뒤에 직전에 썼던 글과 비교하며 어떤 점이 개선되었는지 확인하며, 논술에 대한 자신감을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 8. 그 외 1차 공부법

### (1) 고시문

- **(암기)** 고시문은 요일마다 영역을 나누어 적었습니다. 2019개정 누리과정에서는 세부내용이 굉장히 줄어들었기 때문에, 몇 개의 영역을 묶어 한 주에 두 바퀴씩 반복해서 써보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이 때 주의할 점은, 고시문은 반드시 종이와 연필(혹은 펜)을 이용하여 손으로 적으셔야 합니다. 컴퓨터나 태핑 등을 이용하여 적으실 경우, 실제 시험장에서 종이에 적을 때 이질감을 느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의지가 약하신 선생님들은 인증 스터디를 통해서 강제로 적도록 할 수 있습니다!

## (2) 교육과정 해설서 및 지침서

(2019 개정 누리과정의 해설서, 놀이이해자료, 놀이실행자료에 해당됩니다.)

- **(회독)** 처음부터 빠르게 회독하시기 보단, 처음 읽으실 때는 3~4달의 시간을 두시고 천천히 의미를 이해하시며 읽으시는 것을 추천 드립니다. 이 때, 다음 번 회독 시에 반드시 다시 확인해보아야 하는 곳에는 밑줄이나 필기 등을 하셔야 합니다. 그러나, 모든 것을 이해하거나 암기한 다는 마음보다는, 전체적인 내용의 틀을 만드신다는 생각을 가지시고 부담 없이 읽으셔도 좋습니다. 그 다음으로, 2회독이 시작할 시기에는 각론반이 진행되고 있을 때입니다. 이 때부터는 여러 이론들이 해설서에 어떻게 반영되어 있는지 비교하시며 읽어보셔야 합니다. (교육과정이 개정되어 출제 방식이 어떻게 변할지는 알 수 없지만) 누리과정 해설서와 이론의 내용이 복합적으로 연결되어 문제로 출제되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3회독 때는 모든 문장을 정독하기 보단, 자신이 체크한 핵심 부분을 중심으로 읽으실 수 있습니다.
- **(스터디)** 저는 2회독 때부터 스터디를 시작하였습니다. 2회독 때는 전화스터디를 통해, 어떤 내용이 어떤 고시문과 관련된 것인지, 어떤 문장에서 강조하고 있는 내용이 무엇인지 질문을 주고 받았습니다. 또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은 전화스터디를 통해 함께 그 의미를 파악하였습니다. 3회독 때부터는 마음이 급해지기 때문에, 정말 간단하게 빈칸 스터디를 진행하였습니다. 해설서 내용일 일부를 빈칸으로 뚫어 하루에 5~10개 정도 문제를 만들어 밴드에 글을 올렸습니다. (다음은 2015개정 누리과정 지침서를 활용한 예입니다.) 이 때, 제가 예시로 올려드린 것과 같이 반드시 모든 문장을 적을 필요는 없으며, 핵심 단어와 그 맥락을 익히는 것에 초점을 두었습니다.

7/5(목) #자연탐구 #과학적탐구하기  
#자연현상알아보기

1. 다음은 '자연현상 알아보기'에 대한 설명이다. 다음을 읽고 ㄱ에 들어갈 용어를 적으시오.

[유아가 환경 속에서 쉽게 접할 수 있는 자연물이나 자연현상에 대해 관심을 갖고 탐색과정을 통하여 '변화와 (    )'라는/이라는 자연의 본질에 대한 이해를 도모하는 내용이다.]

☆☆정답☆☆  
ㄱ: 규칙성

## (3) 기출문제

- **(강의)** 고백하자면(?) 저는 기출 강의를 듣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 글을 읽는 선생님들은 꼭 기출 강의를 모두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제 일정이 규칙적이지 않기 때문에, 모든 강의를 듣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생각하여, 선택적으로 기출 강의를 수강하

지 않았습니니다. 그러나 기출문제는, 그 다음 해 문제 출제의 근거가 되며, 또 최근 출제 경향을 익힐 수 있다는 점에서 반드시 강의를 들으셔야 합니다.

- **(문제풀기 및 분석)** 사실 기출 문제를 연도별로 푸는 것은 큰 의미가 없을 수 있습니다. 기출을 풀어본 뒤의 점수가 중요하지 않기 때문입니다.<sup>4)</sup> 그렇기 때문에, 개론과 각론 별 파트끼리 묶어 문제를 풀어보고, 기출로 출제된 이론이 무엇인지, 또 이론이나 용어 등을 어떤 방식으로 서술하고 있는지를 익히시는 것에 초점을 두시는 것이 더 적절합니다. 만약 연도별로 문제를 풀어보고 싶으시다면, 반드시 앞서 말씀드린 영역별로 나누어 풀어본 후 시험 직전에 마지막 점검 차원에서 연도별로 풀어보시는 것이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 (4) 법

- **(암기와 스터디)** 초수 때는 '톡톡'이라는 법 암기 교재<sup>5)</sup>를 따로 구매하여 공부하였습니다. 최소한의 필수 법을 100일 동안 나누어 공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단, 저는 하루에 1일치를 푸는 것이 아니라, 3일치씩을 풀며, 한 주에 한 번은 이전에 풀었던 내용을 누적하여 복습하였습니다. 그러나 이 교재는, 정말 최소한의 법을 담고 있다는 점에서 저의 불안감을 해소시키지 못했습니다. 그러한 이유로 재수 시절 때는, 친구와 밴드 스터디를 만들어 법제처 홈페이지나 어플에서 해당 법을 복사한 뒤, 매일 빈 칸 뚫기로 문제를 만들었습니다. 참고로, 초수 선생님들께는 웹지도반 이후에 법 공부 시작을 추천합니다. 그 이유는, 계속해서 법이 개정되기도 하고, 또 정확한 단어를 적어야 하는 영역 특성상 몰아서 정확하게 외우는 것이 적절하기 때문입니다.
- **(범위)** 법은 그 어떤 영역보다 개인의 선택에 따라 그 폭과 깊이가 달라지는 영역입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유아교육법', '아동복지법'과 장학(연수)자료와 관련된 법(e.g. 학교보건법,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등), 그리고 교사와 관련된 법(e.g. 교육공무원법, 교원 등의 연수에 관한 규정 등)은 꼭 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이 중 '유아교육법'과 '아동복지법'은 단순히 단어만을 암기하는 것이 아니라, 법 자체를 올바르게 이해하시는 정도로 공부하셔야 합니다. (예를 들어, '휴업'과 '휴원'의 차이가 무엇인지 등을 정확히 구분하실 수 있어야 합니다.) 당연하지만, 해당 법의 시행령, 시행규칙이 있는 경우, 당연히 함께 보셔야 합니다. 제가 암기한 법들의 목록을 함께 첨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절대 이 모든 법을 공부하실 필요는 없다는 점, 다시 한 번 기억해주시길 바랍니다! (개인적으로 생각하기에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법에 ☆ 표시를 하였습니다.)

4) 여기에는 여러 이유가 있을 수 있지만, 저는 다음의 두 가지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이미 민샘께서 기출지문을 토대로 다양한 문제를 내주시기 때문에, 지문이 익숙하여 어렵지 않게 분석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둘째, 기출을 풀고 받은 점수가 그 해 합격 점수에 비하여 높다고 하더라도, 이는 실제 시험장에서 겪는 극도의 불안감과 긴장감을 가지고 푸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온전히 자신의 실력이라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5) '오르다꿈 (<https://www.ordaggum.com/index.html>)'에서 판매하는 교재입니다.

#유아교육법1

[시행 2018. 2. 9] [법률 제14567호, 2017. 2. 8,  
타법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 ㄱ )」 제9조에 따라 유아교육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정답☆☆

ㄱ: 교육기본법

※ (관련 법 목록)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감염예방법)

교육공무원법 ☆

교육기본법 ☆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교육환경법) ☆

교원 등의 연수에 관한 규정 ☆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교원지위법) ☆

국민영양관리법

다문화가족지원법(다문화가족법)

도로교통법 ☆

대기환경보전법

대한민국헌법 ☆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미세먼지법)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식생활교육지원법

식품위생법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실종아동법) ☆

아동복지법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청소년성보호법)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아동학대처벌법) ☆

양성평등기본법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어린이놀이시설법) ☆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어린이식생활법) ☆

어린이 제품 안전 특별법(어린이제품법) ☆

유아교육법 ☆

유치원 생활기록부 작성 및 관리지침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응급의료법)

인성교육진흥법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특수교육법) ☆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녹색성장법)

학교보건법 ☆

학교안전교육 실시 기준 등에 관한 고시 ☆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학교안전법) ☆

학교환경 및 식품위생 점검기준

한부모가족지원법(한부모가족법)

## 9. 2차 공부법

(경기도 위주로 작성하였으나, 타 지역 지원 선생님들도 참고하실만한 내용을 함께 적었습니다.)

### (1) 공통

- **(스터디)** 저는 2차 스터디를 두 그룹으로 나누어 진행하였는데요. 첫 번째 스터디는 동네에서 구성한 스터디였습니다. 전원 경기도를 지원했으며, 저와 민쌤 수강생 1명과 타 강사님 수강생 1명까지 총 3명에서 집 근처 스터디룸에서 스터디를 진행했습니다. 1차 합격 발표 전까지는 주 3회, 1회당 6시간(점심 시간 제외) 진행했습니다. 다행히도 모든 스터디원이 1차에 합격하여, 1차 합격 발표 이후에도 같은 구성원들로 주 3회, 1회당 4~6시간 진행하였습니다. 이 스터디에서는 면접, 집단토의, 수업실연, 수업나눔 모두를 하였습니다. 두 번째 스터디는 민쌤 조교 선생님들과 구성한 스터디였습니다. 조교 선생님들은 이 스터디는 1차 합격 발표 이후부터 진행하였으며, 각자의 일정에 맞추어 불규칙적(주 2~3회 8시간 진행)으로 만나 수업실연을 중심으로 진행하였습니다.<sup>6)</sup>
- **(교육 정책)** 경기도는 다른 지역에 비하여 시책의 양이 정말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짧은 시간 안에 모든 시책을 보는 것은 너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저는 '2020 경기유아교육 운영 계획'을 중심으로 보았습니다. 이 자료 또한 양이 많아, 모든 부분을 보기보단 앞쪽에 요약 정리된 표들을 중심으로 보았습니다. (이때, 문제로 출제될만한 정책들을 선별적으로 보기위해선 반드시 기출 문제들을 보셔야 합니다!) 그 외의 다른 정책들은 스터디원과 기존 합격하신 지인분께 받은 요약 정리본을 토대로 공부하였습니다.

### (2) 면접

- **(처음 공부)** 면접은 흔히 말로 하는 논술이라고 하는데요. 기본적인 면접 내용과 방식은 모든 지역이 비슷하지만, 세부적으로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인천은 20분 동안 구상형 1개와 즉답형 3개를 답해야하는 반면, 경기도는 10분 동안 구상형 2개와 즉답형 4개(자기성장소개서 추가질의 포함)를 답해야합니다. 즉, 시간에 따라 답안의 길이가 결정이 되는 것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자신이 지원한 지역의 면접 전형을 먼저 살펴보시고, 그 뒤에 면접 답안의 길이를 먼저 대략적으로 나누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렇게 길이를 나누고 나서, 민쌤의 예상 문제를 보시고, 적절한 길이로 답하시는 연습을 해보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때부터 또 중요해지는 것은, 내용적인 측면에서도 채워나가는 것인데요. 과거 면접 질문들을 보면, 질문은 다르지만 실제로 답하게 되는 내용은 비슷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에, 면접들 문제를 푸실 때 자기 나름대로의 만능 답변을 미

6) 두 스터디를 병행할 수 있었던 이유는, 동네 스터디원 중 한 분이 타 강사님의 강의를 듣기 때문에, 서로 일정이 맞지 않는 날이 존재했기 때문입니다.

리 생각해 놓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e.g. '○○삼계명 만들기' : 유아 존중, 동료교사와의 협력, 가정 연계 등 어떤 질문이 나오더라도 이 것으로 답할 수 있습니다.) 만약 시사 관련 문제나 일반적인 답안으로 답할 수 없는 질문이 나온다면, 스터디원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눈 뒤 이를 필기하여 반복해서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 **(스터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다른 강사님 수강생과 함께 스터디를 하였는데요. 그 이유는 민쌤의 문제 외에도 다양한 문제를 접해보고 싶어서였습니다. 그래서, 각자 민쌤 문제와 타 강사님 문제를 선정하고 그에 대한 답을 생각해온 뒤에, 스터디날에 서로 바꾸어서 답을 해보는 식으로 진행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태도 측면에서, 1차 합격 발표 전까지는 입장과 퇴장의 과정을 생략하고 앉아서 답변하는 자세와 눈빛, 목소리 톤과 빠르기만을 서로 피드백 해주었습니다. 입장, 퇴장은 1차 합격 발표 이후에 해도 충분히 고칠 수 있지만, 그 외에 앞서 기술한 것들은 하루 아침에 고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1차 합격 발표 이후에는 2~3번 정도 미리 면접 복장을 입고 만나서 불편한 점은 없는지, 평소와는 달라지는 습관 등은 없는지 서로 점검해주었습니다. 추가로, 입장과 퇴장을 연습하실 때는, 노크, 인사, 이동, 대기석 착석, 답변석 이동 등의 순서를 미리 확인을 하시고, 그에 맞추어 연습을 해보셔야 합니다. 실제 시험장에서는 긴장한 나머지 여러 실수가 나올 수 있으므로, 평소에 반복적인 연습을 하여 최대한 실수를 줄이도록 하여야 합니다.

• **(자기성장소개서 및 추가질의)** 자기성장소개서의 질문은 1차 합격 발표날에 함께 업로드됩니다. 이 질문들은 주로 경기도의 교육 정책과 관련된 질문들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성장소개서를 작성하기 위해서는 교육 정책을 많이 알아두어야 합니다.<sup>7)</sup> 올해 시험에서는 기한이 어떻게 주어질지 모르므로, 1차 합격 발표 전에 기본적인 정책(2020 경기유아교육 운영 계획)을 미리 숙지해보시는 것을 권합니다. 한편, 자기성장소개서는 점수에 들어가는 영역은 아니지만, 개별 면접 때 추가질의로 연결됩니다. 이 추가질의는, 자기성장소개서의 질문을 그대로 제시되는 경우도 있으나 나의 답변 중 일부분의 내용을 토대로 연계된 질문이 제시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최대한 솔직하게 답변하되, 상상이 가미(?)되는 경우에는 그에 대한 경험을 직접 해보거나 머릿속으로 자주 시뮬레이션 하여, 질문에 대하여 상대방이 진솔성있는 답변으로 느낄 수 있도록 연습하셔야 합니다.

• **(개인지도)** 저는 운이 좋게도, 면접 특강을 해주신 조울스피치의 김진희 원장님께 지도를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요. 강남에 위치한 조울스피치 강의실에서 원장님께 지도를 받으며 제 단점을 발견하고 보완할 수 있었습니다. 스터디를 통해서 찾아 못한 해결법이나, 내가 인식하지 못한 여러 가지 부족한 부분을 원장님께서 발견 해주시고, 함께 연습하는 과정을 가졌습니다. (e.g. 저는 ㅅ의 발음이 부정확한 편인데, 그 이유가 입 근육을 모두 쓰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이러한 특성상, 긴장하게되면 근육이 더욱 경직되어 발음이 부정확하게지고, 그 속도도 매우 빨라지게 되었습니다.) 또한 답변의 내용에 대해서도 상당한 지식을 갖추고 계셔서,

7) 19정시와 19추시 때는 2~3일의 기간 밖에 주어지지 않았으나, 이번 20정시의 경우 5일이라는 기간이 주어졌습니다.



제가 부족한 영역이 무엇인지 찾아주시고 보완방법을 알려주셨습니다. 만약 재수 이상의 선생님 중 면접에서 반복하여 원하는 점수를 얻지 못하시는 분께서는, 저와 같이 전문적인 지도를 받아보시는 것을 추천해드립니다.

- (기타) 면접 시험은 절대로 얼마나 논리적이고 창의적인 사람인지를 보는 시험이 아닙니다. 그것보다, 정말로 유아들을 위한 사람인지, 다른 사람과 더불어 일할 수 있는 사람인지, 또 얼마나 발전하고자 노력하는 사람인지를 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적절한 답변을 연습하시는 것과 더불어, 반드시 태도의 측면에서 반복적인 연습을 하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저 또한 면접의 내용은 좋지 못하였으나, 면접관님들께서 태도 측면에서 좋게 봐주신 결과 높은 점수를 받을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 (3) 집단토의

- (강의) 처음으로 집단토의를 하시게되면 면접과는 다르게 어떠한 방식으로 진행되는지 잘 모르실텐데요.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강의를 들어보시는 것을 권합니다. 강의를 통해 토의가 진행되는 기본적인 순서와 토의 시의 발화 방법 등에 대해 감을 잡으신 뒤에 실제로 연습해보시는 것이 적절합니다.
- (스터디) 저는 집단토의를 1차 합격 발표 이후부터 준비하였으며, 이때 처음부터 실제로 해보는 것보다 방법을 익히는 것에 초점을 두었습니다. 그래서 기초발언과 마무리발언을 스터디원들과 함께 짜보고, 또 각각의 사례를 어떻게 분석할 수 있는지부터 시작하였습니다. 그 이유는 집단토의는 면접과 유사한 측면이 있기는 하지만, 어느 부분에서 차이가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함이었습니다. 이렇게 함께 지문을 분석하고 발언 계획을 반복적으로 하다가, 3명이서만 집단토의를 해보았습니다. 이 때, 각자 발언을 할 때마다 시간을 재기는 하였지만, 전체 집단토의의 시간을 측정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 강의를 통해 알게 된 방법을 나의 방법으로 만들 수 있었고, 집단토의에 대한 불안을 극복할 수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20정시 집단토의 문제는 이재정 경기도 교육감의 신년사와 관련된 문제가 출제되었는데요. 저는 시험 2주 전에 이 신년사를 스터디원들과 함께 분석하여, 실제 시험장에서는 어렵지 않게 발언을 구상할 수 있었습니다.
- (실제 해보기) 결론적으로 저는 집단토의를 단 한 번 밖에 실제로 해보지 못했습니다. 1차 합격 발표 이후 2주간은 방법을 익히고, 나머지 2주간 번개 식으로 실제 집단토의를 하려고 하였으나, 마지막 주(4주차)에는 다들 집단토의를 하지 않는다는 것을 몰랐습니다. 그 덕에 실제 시험장에서까지 엄청난 걱정을 하였지만, 결론적으로는 만점을 받았습니다. 비록 제가 실제로 집단토의를 해보지는 못했지만, 그만큼 스터디에서 집단토의의 방법을 적절하게 연습했기 때문에 좋은 결과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 (기타) 집단토의는 혼자서 너무 튀려는 사람이나 집단에서 어울리지 못하는 사람을 선별하기 위한 영역입니다. 그러므로, 적절한 내용의 발언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나는 협력할 수 있는 사람이다!'를 보여준다면 높은 점수를 받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 (4) 수업실연

- (강의) 당연한 것이지만, 수업실연은 무조건 강의를 들으셔야 합니다. 특히 재수생이상이신 선생님들께서는, 이미 활동의 틀을 모두 만드시고 많은 문제를 접하셨다고 생각하셔서 강의를 듣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수업실연의 경향은 계속해서 달라지고 있으며, 그에 따라 강조점도 변화하기 때문에 반드시 강의를 들으셔야 합니다. 중요한 것은, 강의를 들어보신 후에 반드시 모든 활동을 실제로 해보셔야 합니다. 이 때, 대표 실연자가 지적받은 사항을 내가 하고 있지는 않는지, 또 칭찬받은 사항을 나의 것으로 만들 수는 없는지 등을 고민하신다면, 빠르게 성장하는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 (스터디) 1차 합격 발표 전까지는 모든 유형의 기본적인 틀을 만드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습니다. 2019개정 누리과정에서 게임과 자유놀이 등이 매우 강조되는 것은 맞지만, 그렇다고 하여 다른 유형의 활동이 교육과정 안에서 배제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물론 1차 합격 발표 후에는 최신 경향에 맞추어 게임, 자유놀이 등을 하시되, 그 전에는 구조적인 활동을 꼭 하셔서 그 틀을 만들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리자면, 저는 1년차에 인천의 2차 시험 유형에 맞추어 '교육계획안'도 준비하였는데요. 활동별 틀을 만드실 때 이러한 '교육계획안'을 염두하여 만드신다면, 더욱 완성도 높은 틀을 만드실 수 있습니다. '교육계획안'은 수기로 적는만큼, 수업실연에서 빠뜨릴 수 있는 요소들을 발견할 수 있도록 돕기 때문입니다. 추가로, 저는 타 강사님의 수강생과 스터디를 같이 하였으나, 민쌤께서 내주신 문제만으로 수업실연을 진행하였습니다. 또한 입장과 퇴장 연습은, 면접과 마찬가지로 1차 합격 발표 이후에 본격적으로 시작하였습니다.
- (기타) 수업실연을 하실 때 꼭 만능 손유희와 간단한 찬트, 혹은 손장단 등을 준비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수험생은 한 번의 수업실연으로 끝이 나지만 평가자의 경우 동일한 문제의 실연을 하루에 10번 넘게 보게 되어, 자칫 지루하게 느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익숙하고 간단한 동요를 다양한 방식으로 변형하여, 지루하지 않은 수업이 될 수 있도록 하시는 것을 적극 추천하겠습니다.

#### (5) 수업나눔

- (강의) 수업나눔은 자신의 수업에 대한 반성적인 성찰을 하는 것인데요. (이 때 수업 설계 또한 포함될 수 있습니다.) 쉽게 생각해서 내 수업에 대한 면접이라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수업나눔을 실제 해보게 될 경우, 수업나눔의 취지와는 다르게 자기변명의 시간이 되거나 너무 짧은 시간 안에 수업나눔이 끝나게 됩니다. 이는 수업나눔에 대한 이해와 그와 관련된 여러 지식들이 부족하기 때문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강의를 꼭 들어보셔야 합니다. 강의를 통해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대답하는지, 민쌤께서 말씀하시는 자기변명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등을 익히실 수 있을 것입니다.
- (스터디) 수업나눔은 무조건적으로 기출에 나온 질문들을 토대로 해보시면 됩니다. 그 이유는 수업나눔의 질문이 크게 변하지 않기 때문인데요. 기출에 나온 질문을 반복해서 연습

하신다면 수업나눔에서 사용되는 어휘나 지식 등을 자연스럽게 익히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반복하라는 것이 매일 3~4번의 수업나눔을 하라는 의미는 아닙니다. 하루 1~2번의 수업나눔을 하되, 2차 시험 준비 기간동안 지속적으로 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한편, 기출 문제를 살펴보면, 이해하는 것만으로도 어려운 질문이 꼭 하나씩 제시되어 있는데요. 질문을 이해하고 보면 그렇게 어려운 질문이 아닌데도, 질문을 처음 읽었을 때는 무엇을 요구하는지 잘 이해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에 수업나눔을 연습을 하실 때도 이러한 질문을 주고 받으며 당황할 수 있는 상황을 최대한 줄여나가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문제의 조건과 관련된 질문을 반드시 연습하시기 바랍니다. 그 이유는, 기출을 살펴보면 문제의 조건과 관련된 수업나눔 질문이 자주 출제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평소 이러한 연습을 통해, 수업을 구상하는 단계부터 수업나눔을 대비할 수 있도록 연습하셔야 합니다.

- (기타) 수업나눔은 수업을 얼마나 잘했는지를 보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보다는 교육트렌드에 맞게 얼마나 지식을 가지고 있으며, 그러한 지식을 토대로 내 수업에는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는지, 나아가 앞으로 얼마나 발전할 수 있는 교사인지를 보려는 영역입니다. 그러므로, 자기변명이 시간이 되기보단, 앞으로 내가 어떻게 발전해나갈 수 있는지를 고민하신다면 높은 점수를 받으실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 10. 마지막으로 드리는 말씀

우선 이렇게 긴 글을 읽어주신 선생님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합격생 간담회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시험은 열심히, 똑똑하게, 또 함께 할 때 좋은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노력한다고 모두가 합격하는 것은 아니지만, 노력해야만 합격할 수 있고, 자신의 장점과 단점을 올바르게 이해하며, 내가 가진 것을 다른 선생님들과 나누는 가운데 우리는 합격에 한 발자국 더 가까이 갈 수 있을 것입니다.

추가로 제가 이 수기에서 말씀드린 방법이 절대적으로 옳은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무수히 많은 선생님들께서 지금까지 수 많은 수기를 작성해주셨고, 제 수기는 그 일부일 뿐입니다. 제가 합격했다는 이유로 제 글이 '합격수기'가 되고, 불합격하셨다고 해서 '불합격수기'가 되는 것은 아니라 생각합니다. 이 말인 즉슨, 선생님들께 꼭 맞는 공부방법을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선생님들 모두가 각자에게 맞는 방법을 통해 공부하셔서, 내년에는 선생님들의 공부방법이 '합격수기'로 기록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민쌤과 함께 가시기로 하신 이 길이, 부디 꼭 합격이라는 결실을 맺어지기를 바랍니다. 지금은 이렇게 합격수기를 통해 서면으로 뵙지만, 곧 현장에서 뵈 수 있기를 기도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감사드리며, 긴 글 마치겠습니다.

‘20. 3. 15.(일)

경기도 공립 유치원 교사이자, 민쌤의 제자 김현승 씀.